

욕망의 변증법적 전개양상을 통해 살펴본
<최고운전>의 특징과 그 소설사적 의미*

안창수**

- I. 머리말
- II. 욕망의 변증법과 삶의 조건
- III. 사회적 활약상과 욕망의 변증법
- IV. 아래자설화 전승의 소설사적 의미
- V. 비극성의 소설사적 의미
- VI. 맺음말

【요 약】

<최고운전>에는 대립적인 두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작품의 의미를 형성해 가고 있다. 작품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인 삶의 조건을 보여주는 부분과 사회적 활약상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나뉘어 지며, 최치원에게 부과된 삶의 조건에 근거하여 사회적 활약을 펼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살펴 본 결과, <최고운전>은 최치원이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부과되었던 부정적인 삶의 조건을 극복하고, 사회질서를

* 이 논문은 200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 국어교육과 교수

개조하려 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비극적인 전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고운전>은 비극적 영웅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사적 의미는 변증법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비극성과 영웅소설의 사적(史的) 좌표를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고운전>은 아래자설화의 전개방식과 서사모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선시대의 영웅소설이 건국신화로부터 전설, 민담으로 전승되어 오던 서사모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고운전>의 비극성은 아이러니에 의해 파생되고 있는데, 소설에서 아이러니가 비극의 장치로 사용된 것은 <최고운전>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최고운전>은 비극적 아이러니가 조선 전기의 소설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I. 머리말

<최고운전>의 도입부는 최치원의 아버지인 최충(崔沖)이 문창령(文昌令)을 제수 받고 집으로 돌아와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최충의 통곡은 문창 지방에 현령의 아내가 실종되는 변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부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번민을 해결하지 못한 까닭이다.

번민은 문창령으로 부임하려는 마음과 부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부임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가정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욕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충의 번민은 하나의 욕망이 다른 욕망에 의해 부정되며 파생되고 있고,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두 욕망이 대립적으로 맞서며 그 결과에 의해 최충의 다음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욕망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며 인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도입부에 국한되지 않고 <최고운전>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이다. 문창현에 부임하여 금돼지에 의한 변괴를 겪으며 최치원이 출생하고, 버려지고 구출되는 과정을 겪고, 중국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발생한 국가의 변고를 해결하고, 종내에는 중국에 들어가서 크게 활약하고, 마침내 귀국하여 은거하는 마지막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물들은 모두 상호 부정적이고 대립적인 욕망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인물들의 욕망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최고운전>의 전반적인 특징이라면, 욕망의 변증법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작품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임·병 양란 이후 창작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추측이 무너지고 1579년 이전에 창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며¹⁾ <최고운전>은 16세기의 우리 소설사를 새롭게 조명해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고운전>의 연구는 단순히 작품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소설사적 위상을 알아보려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²⁾ 욕망의 변증법적 전개 양상을 파악해 보려는 이 글에서의 노력도 이 시점에서 <최고운전> 연구에 부과되어 있는 문제의 한 지평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위에서 출발한다.³⁾

1)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2, 1~28쪽)

2)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아래의 것이 있다.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고전문학연구 1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12, 145~176쪽)

정출현,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전소설사의 한 국면*(고소설연구 1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31~64쪽)

3) 이 글에서의 텍스트는 영남대본 <최고운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이본을 참고한다.

II. 욕망의 변증법과 삶의 조건

최치원의 아버지인 최충은 문창령을 제수 받고 나서 부임하는 것과 마는 것 사이에서 변민한다. 문창현에 부임하면 아내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벼슬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벼슬을 하려는 것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해 볼 수 있고, 벼슬이 제공하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요 가문의 영광인 것이다. 그러나 최충에게는 벼슬에 나아가는 것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부과되어지고 있다. 개인의 영달이 곧 가정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호 부정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최충에게 부과된 삶의 조건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열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충이 내린 결정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벼슬자리에도 나아가는 것이었다. 시비들로 하여금 아내를 지키게 하거나,⁴⁾ 붉은색 실을 아내의 손에 묶어 놓아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⁵⁾ 최충이 마련한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태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충의 아내는 어느 날 검은 구름이 일어나 세상이 캄캄해지고 광풍이 부는 가운데 홀연히 사라지고 만다.⁶⁾ 최충의 안전장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금돼지에 의해 아내가

4) 每令群婢共守其妻 而自出外以治其職<崔孤雲傳>

5) 以紅絲係其妻手 而出於以治其任<崔孤雲傳>

6) 乃於一日 黑雲自起 天地暝暗 風雷暴起 電影翻閃 守者皆驚伏 俄而視之已失矣<崔孤雲傳>

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최충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 힘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다. 아내가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도 최충은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거나,⁷⁾ 아내를 부르며 통곡할 따름이었다.⁸⁾

최충의 아내가 금돼지에게 납치되는 것은 <최고운전>의 핵심적인 사건의 하나이다. 이 때 작품은 최충이 문창현의 변괴에 대해 아무런 사전 정보를 갖지 않은 행복한 상태에서 현령으로 부임한 뒤 뜻밖에 아내가 금돼지에게 납치되는 사건을 겪도록 전개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고운전>의 모든 이본은 최충이 현령으로 부임하기 전에 문창현의 변괴를 미리 알고 이로 인해 심적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문창현의 변괴를 모르고 부임하는 경우, 작품에는 금돼지에 의한 부녀자 납치 사건과 그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만이 부각되어진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작품은 금돼지의 부녀자 납치사건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에 앞서 상호 부정적인 두 욕망이 대립적으로 전개되도록 짜여지며 개인의 영달과 가정의 행복이 공존할 수 없도록 설정된 최충의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문제 삼고 있다. <최고운전>의 모든 이본에서 최충이 문창현의 변괴를 미리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상호 부정적인 두 욕망이 대립적으로 작용하도록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은 최충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 최치원 역시 아버지인 최충에게 부과되었던 삶의 조건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최치원은 자신을 버린 뒤 다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려는 아버지의 권유를 물리치고 바닷가에 홀로 남아 천유(天儒)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다. 자신을 버렸던

7) 冲驚惧不自勝焉<崔孤雲傳>

8) 乃呼妻慟哭<崔孤雲傳>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 결과 최치원의 탁월한 학문적 성취는 가족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에서 오는 가정의 행복과 상호 부정적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최치원은 중국에 들어가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대단한 출세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개인적 영달도 가족들과 이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창현에 부임한 뒤 최충은 아내가 금돼지에게 납치되는 변괴를 입는다. 금돼지가 최충의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은 최치원의 출생을 기이(奇異)하게 하여 그의 탁월한 능력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도 작중 인물들은 상호 부정적인 두 욕망이 대립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최충은 아내를 찾아 어떤 바위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은 땅이 넓고 비옥하며 온갖 꽃이 만발해 있고 이름 모를 새들이 꽃가지에 늘어 앉아 지저귀고 있는⁹⁾ 별천지였다. 최충은 이 모습을 보고 탄성을 지르며 이곳이 신선들이 사는 땅이 분명하다고 말한다.¹⁰⁾ 최충에게 동굴 속의 세상은 인간들이 사는 세속에서 벗어난 선계(仙界)로 다가오고 있고, 이곳을 보고 난 뒤 지른 최충의 탄성은 단순히 별천지에 대한 놀라움을 넘어서 신선들이 사는 세계에 자신도 살고 싶은 동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금돼지가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을 자는 곳이었다. 세속에서 벗어난 선계에서 살려면 최충은 아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계에서 살고 싶은 최충의 욕망은 아내를 구출하여 인간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욕망에 의해 부정되게 된다.

상호 부정적이 두 욕망이 대립적으로 작용하도록 조건 지워진 것은 최충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납치된 후 최충의 아내는

9) 地廣且沃 花樹叢濃 有非常之鳥 羅滿於花枝矣<崔孤雲傳>

10) 冲喟然歎 願謂李績曰 世間安有如此之地乎 必神仙之地也<崔孤雲傳>

금돼지를 무릎에 누여 재우며¹¹⁾ 그 아내로 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 억압에 의해 이루어진 타의적 복종이라는 근거는 작품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최종이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를 좇아 아내의 소재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¹²⁾ 최종의 아내를 포함해서 납치되어 온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금돼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편이 자신을 구출하러 왔다는 것을 눈치 챈 최종의 아내가 금돼지에게 이곳에서 길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¹³⁾ 한 것도 탈출을 위해 금돼지를 안심시키려 한 말이라는 표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¹⁴⁾ 그러나 선계에서 길이 살고 싶었던 마음은 최종이 찾아옴으로써 인간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욕망에 의해 부정되고 만다. 그녀가 자신을 구하러 온 최종의 존재를 금돼지에게 감추며 돌아갈 길을 모색했던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난 행위이다.

최종과 그의 아내가 동굴 속의 선계를 동경했던 것은 그곳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 낙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곳은 온갖 화초가 만발하고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곳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초인적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¹⁵⁾ 영원히 살 수 있는 초인적 능력을 갖추고 편안하며 즐겁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이다.

11) 有金色黃豬 乃枕其妻之膝於龍文席而睡<崔孤雲傳>

12) 於是 冲聞喜樂之聲 窺入花間 倚牕視之<崔孤雲傳>

13) 我是人間之人 恐不可長享此地 故泣之<崔孤雲傳>

14) 최기숙, 권력담론으로 본 최고운전(연민학지 5집, 연민학회, 1997, 53~105 쪽)은 최종이 찾아왔을 때 흘렸던 부인의 눈물이 가정의 권위로 다가오는 최종에 대한 거부의 몸짓일 수 있다고 함으로써, 최종의 부인이 갖고 있었던 욕망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있다.

15) 金猪曰 此地人必無死理 願勿悲也<崔孤雲傳>

이런 점에서 동굴 속 선계에 대한 최충과 그 아내의 동경은 이상 세계의 실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세계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최충은 아내를 구출해야 하고 아내는 금돼지를 죽이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 아내를 구출하고 금돼지를 죽이는 것은 최충과 그 아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인간들이 사는 현실세계의 질서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계에 대한 동경과 그것을 부정하고 인간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과 현실세계에서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삶의 조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후 낳은 최치원은 금돼지의 아들로 오인되어 바닷가에 버려진다. 금돼지의 아들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삶의 이상적 국면이 실현되어진 동굴 속 세계의 질서를 최치원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건지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치원은 금돼지의 아들로 오인되어졌을 뿐이므로, 현실세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금돼지의 아들로 오인되어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은 이상세계를 실현하려는 것과 현실세계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충과 그 아내에게 부과되었던 삶의 조건이 그대로 최치원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최치원은 금돼지의 아들로 의심받아 버려졌다가 다시 구출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와 대립하게 된다. 아내가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와서 아이를 낳자 최충은 아이가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며 바닷가에 버린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를 하늘이 불쌍하게 여겨 천녀(天女)를 보내 보살피고 있다는 말을 듣고, 또 아내로부터 아이가 금돼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최충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아이를 데려오려 한다.

아내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식을 버리게 했지만 버린 아이를 다시 자식으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부정하며 최종은 심각한 자기 변민에 빠지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데려오고자 하나 버린 자식을 다시 데려오면 사람들이 비웃을까 두렵다는 최종의 고백은¹⁶⁾ 사람들의 비웃음을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갖고 있는 내적 고민의 실체를 보여준다. 마침내 최종은 아이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¹⁷⁾ 지경에 까지 처하며 아버지로서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상호 부정적인 욕망이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최종은 아버지라는 세속적 권위를 등에 얹고 자행되는 억압적 횡포를 보여주며, 또한 그로 인해 오히려 자기모순에 빠져 추락하고 마는 왜소한 모습을 드러낸다. 세속적 권위를 가진 세력이 불합리한 횡포를 자행할 때 오히려 패배에 이르게 되는 삶의 조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치원은 부모로부터 버려져 천녀의 도움으로 살아난 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자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강력하게 성토했으며, 강제로 자기를 데려가려 하면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한다.¹⁸⁾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은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자 아버지가 지어준 누대(樓臺)에서 공부를 하고, 주고 간 쇠지팡이로 글씨 연습을 한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들이며 아버지를 인

16) 冲甚感曰 吾亦欲還率來 然始此兒名金猪之子而棄之 今若還來 則人必笑我矣 是以難之矣<崔孤雲傳>

17) 於是 冲自責其過曰 吾亦慙於汝<崔孤雲傳>

18) 然而我名詐爲金猪之子 而乃棄于此 其爲殘忍薄行之人也 我今何面目往見父母哉 强欲取我 我當沒海矣<崔孤雲傳>

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부정해야 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찾아온 뒤 최치원은 아버지의 선물은 받아들여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가 지어주고 간 누대에서 천유(天儒)의 가르침을 받아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다. 최치원이 아버지를 따라갔다면, 최치원의 양육자는 아버지가 된다. 세속적 인물이 양육자가 됨으로써 최치원은 인간적이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닌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음으로서 최치원은 천녀(天女)와 천유(天儒)들에 의해 길러지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 최치원의 양육자가 하늘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치원은 천상적이며 영웅적 능력을 지닌 인물로 양육된다.

현실적 한계를 지닌 인물과 천상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양면성이 최치원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부정하려는 욕망과 긍정하려는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천상적 인물로서의 최치원과 세속적 인물로서의 최치원도 상호 부정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세속적 인물로 남기를 거부하고 천상적 인물로 살고자 하는 최치원과 어쩔 수 없이 세속적 인물로서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최치원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웅적 인물로서의 최치원은 현실적 한계에 의해 발목 잡히게 되고, 현실적 한계는 천상적 능력에 의해 초월되도록 조건 지워져 있다.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납치되는 과정을 겪으며 출생하고 이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려져 하늘에 의해 구출되고 양육되는 유아기까지의 이야기는 최치원에게 부여된 다양한 삶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영달과 가족의 행복이 대립되어 있는 것은 최치원에게 부여된 가정적 삶의 조건이고,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과 현실세계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립되어 있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삶의 조건을 보여주며, 현실적 한계를 지닌 인물과 천상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대립되어 있는 것은 최치원에게 부여

된 개인적 삶의 조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극복하여 어떻게 가정적 정상적 질서를 회복하며, 이상세계의 실현과 현실세계의 질서가 상충되는 사회적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최고운전>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또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 가정적 질서의 회복과 사회적 성취의 문제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어서 한 작품에서 동시에 다루어질 때 작품의 유기적 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최고운전>이 10여 개의 독립된 설화들이 한 데 엉기어 이루어진 삽화적 질서를 갖고 있다고 보거나,¹⁹⁾ 주제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하여 민족의식을 표출한 작품이라거나²⁰⁾ 가족질서의 이상을 실현하려 한 작품으로 보려는 견해가²¹⁾ 나뉘어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운전>에서 가정적 질서의 회복은 사회적 성취를 통하여 실현됨으로써,²²⁾ 두 문제는 하나의 작품적 질서 위에 긴밀하게 엮여져 있다. 그러므로 <최고운전>은 비정상적인 가정적 조건에서 출생한 최치원이 이상세계의 실현과 현실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일정한 현실적 조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천상적 능력을 펼쳐 보이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 정병욱, 최문헌전 소개(『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5, 269~278쪽)

20) 정병욱, 위의 글.

21) 신태수, 최고운전의 구성과 이상주의적 성격(『문학과 언어 15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4.5, 151~181쪽』)

22)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질 것이다.

III. 사회적 활약상과 욕망의 변증법

기이하게 출생하여 버려지고 구출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최치원에 게 부과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조건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이후의 이야기는 다양한 삶의 조건에 근거한 최치원의 사회적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치원의 사회적 활약상은 크게 중국으로부터 야기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부분과 중국에 들어가 활약하는 부분 그리고 귀국하여 은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부분은 중국이 신라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계기로 최치원이 승상(丞相) 나업(羅業)의 딸과 결혼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국에 들어가 활약하는 부분은 중국 황제가 최치원을 부르고, 이로 인해 최치원이 가족과 헤어진 다음 중국에 들어가 활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귀국하여 은거하는 부분은 최치원이 귀국하여 신라왕에게 배척받은 뒤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은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위기를 해결함
 - 1) 중국이 신라에 ‘宛函中之物而作詩’의 문제를 냄(사회)
 - 2) 최치원이 나승상(羅丞相)의 사위가 됨(가정)
 - 3) 시를 지어 문제를 해결함(사회)
2. 중국에 들어가 활약함
 - 4) 최치원이 황제의 부름을 받음(사회)
 - 5) 가족과 헤어짐(가정)
 - 6) 중국에 들어가 활약함(사회)
3. 귀국하여 은거함
 - 7) 최치원이 귀국하여 신라왕에게 배척됨(사회)
 - 8)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에 은거함(가정)

작은 단락 1)에서 8)까지는 최치원의 사회적 활약상을 몇 개의 단위로 묶어 작품에 서술된 순서대로 드러낸 것이고, 큰 단락은 최치원이 활약했던 공간에 따라 작은 단락을 몇 개의 큰 단위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작은 단락 1), 3), 4), 6), 7)은 최치원의 사회적 성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락이다. 이에 비해 2), 5), 8)은 최치원이 가정의 정상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단락의 순차적 질서에 의하면 <최고운전>에는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최치원의 노력과 가정의 정상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작품을 이루는 두 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은 아버지가 지어주고 간 월영대(月影臺)에서 가족과 헤어져 고아처럼 홀로 남겨졌지만 천유(天儒)들과 교제하며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학문적 성취가 가족과 헤어짐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에서 최치원에게 개인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은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대립되어 있었다. 개인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대립되게 된 것은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던 기이한 출생 배경 때문이었다. 이것은 최치원이 아버지 최충에게 부과되었던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태생적으로 이어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큰 단락 1)에서 중국은 밀봉된 상자 속에 달걀을 감추어 두고 신라에 내용물을 알아맞히라는 문제를 내고 해결하지 못하면 침범하겠다고 위협한다. 이 소식을 들은 최치원은 월영대에서 나와 거울을 고치는 상인으로 변장하여 승상 나업의 딸에게 접근하고, 마침내 나승상의 사위가 된다. 가족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던 최치원이 결혼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최치원은 나승상의 사위가 된 다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중국이 낸 문제를 해결하며 구국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다.

중국이 신라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낸 것은 국가 사이의 분

쟁이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그러나 이것은 최치원에게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고, 최치원은 이를 계기로 삼아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 큰 단락 1에서 개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은 곧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성취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과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부정적인 삶의 조건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며, 지금까지 작품을 지배해 왔던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작품은 이제 삶의 조건을 바꾼 최치원의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감으로 채워진다.

큰 단락 2는 최치원이 중국에 들어가 더 큰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부분이다. 해결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문제를 해결하자 중국의 황제는 문제를 해결한 선비를 중국으로 보내라고 신라에 압력을 가하고, 신라에서는 승상 나업을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최치원은 그것의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자신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려 한다. 최치원이 중국으로 가려는 것은 그곳이 자신의 역량을 더욱 크게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과의 이별을 전제로 하기에 개인의 성취를 이루는 것과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상호 부정적인 것으로 대립하게 된다.

여기에서 힘들게 이룩했던 가정의 질서가 다시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며 작중인물들은 비탄에 빠지게 된다. 최치원의 아내가 된 나씨녀는 이별 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불안해한다. 그러나 최치원은 돌아올 것을 자신하며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에 가서 체후나 장상(將相)이 될 정도로 크게 출세한 다음 부귀와 공명을 아내와 함께 하겠다고

하며 슬퍼하는 아내를 달랜다.²³⁾ 다시 만날 것이 보장되고 재회 후에 부귀와 공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면, 이 별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치원이 가족과 헤어져 중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이별이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아내와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치원의 중국행 또한 개인의 성취와 가정의 질서 유지가 상호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큰 단락 1과 2에서 최치원은 부친에게 부과된 이래 자신에게까지 넘겨졌던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정상적으로 바꾸며, 개인의 사회적 성취가 가정의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공고한 가정의 질서 위에서 더욱 커다란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조건을 만들 수 있었다.

큰 단락 3은 최치원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은거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귀국 후 최치원은 중국에서의 빛나는 활약에도 불구하고 신라왕에게 배척되어 가족과 함께 가야산으로 은거하고 만다. 중국에서 미적거리며 놀다가 돌아왔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宛函中之物而作詩’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중국에 가서 영웅적 활약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이 예기치 못했던 문제에 부딪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최치원이 신라왕에게 배척된 것은 사람들에게 속아 임금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때문이다.²⁴⁾ 중국에서 활약하며 국

23) 今入中原 則天子必用我 大則封侯 小則將相矣 致遠亦作慰之曰 桐房夜夜莫愁苦 翠黛花顏恐衰耗 此去功名當自取 與君富貴喜居邸<崔孤雲傳>

24) 영남대본에는 최치원이 동문 밖에 갔다가 왕의 행차를 만났는데 왕이 최치원에게 중국에서 빈둥거리다 돌아왔다고 하며 질책하여 내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배척된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본 예컨대 김기동본에는 최치원이 국왕의 행차를 모르고 마차를 타고 앞

내 사정에 정통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사회적 좌절은 이율배반적이게도 그의 사회적 성취 욕구의 결과가 된다. 중국에 가서 더욱 크게 활약하려 했던 성취 욕구가 없었다면, 그래서 국내에서의 활약에 만족하며 이곳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최치원의 사회적 좌절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치원의 좌절과 절망은 가족들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은 임금에게 배척받아 가야산에 은거하며 여생을 보내야 했던 최치원의 좌절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치원의 사회적 성취는 오히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려 가족들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다. 사회적 성취가 오히려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큰 단락 3에는 최치원의 사회적 성취와 가정의 질서 유지가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조건지워져 있다.

큰 단락 1~3까지의 순차적 질서는 <최고운전>에서 사회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두 축으로 다루면서 개인의 성취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맺어 왔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치원은 개인의 성취와 가정의 질서 유지가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태생적으로 물려받았으나 둘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바꾸며 사회적이며 가정적으로 빛나는 성취를 이루기도 했지만 결국 태생적인 삶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의 과정이다.

을 지나가다가 불경죄에 걸려 배척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배척의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고운전>의 여러 이본에는 최치원이 귀국하면서 사람(또는 友人)들에게 속아서 국왕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장면이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의거해서 보면 최치원이 마차를 타고 국왕의 앞으로 지나갔던 것도 임금의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저지를 실수가 된다. 그러므로 국왕의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최치원이 배척된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고운전>은 비극적인 작품이다. 주인공의 좌절로 끝났다는 점에서 결말이 비극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태생적인 삶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패배하고 말았다는 작품의 전개과정이 비극적이다.²⁵⁾

큰 단락 1에서 최치원은 나승상의 사위가 되고 국가의 위기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는 사회적 성취를 이룬다. 최치원의 사회적 성취는 그의 천상적 능력에 힘입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천상적 능력은 현실적 한계상황과 대립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최치원의 욕망과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계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천유들의 가르침을 받아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며 천상적 능력을 갖추게 된 최치원은 자신의 천상적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최치원이 시를 읊는 소리가 수만 리 떨어져 있는 중국 황제의 귀에까지 쟁쟁하게 들리게 한 것은²⁶⁾ 장차 최치원과 중국 황제의 대결을 염두에 둔 복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최치원이 자신의 능력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었고 이것이 작품의 전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치원의 시 읊는 소리를 듣고 호승심이 발동한 중국의 황제가 특별히 선발하여 보낸 학사(學士)들을 자신이 공부하고 있던 월영대 아래에서 만나 탁월한 재능으로 왜소하게 만들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은 욕

25) 김기동본에는 나무꾼이 우연히 신선이 된 최치원을 만났다는 일화를 덧붙여 놓아 최치원이 가야산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것으로 결말을 지음으로써 <최고운전>이 비극을 초월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치원의 좌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향유층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며, 이런 결말로 인해 최치원의 비극적 패배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26) 會中原皇帝出遊後庭 遙聞詠詩之聲 澄且涼焉 問其侍臣曰 何處詠詩之聲至於斯也 對曰 新羅儒生詠詩之聲也<崔孤雲傳>

구가 행동으로 표출된 첫 사건이었다. 이에 비해 현실세계의 사람들에게 최치원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孤兒)로 자라고 있는 불쌍하고 비천한 어린아이로 비쳐질 뿐이었다.²⁷⁾ 현실세계의 사람들은 아무도 최치원의 천상적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천상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욕구가 부정되며, 최치원은 떨어져 해진 옷을 입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치로 변장하여 나승상의 딸에게 접근하고 자청하여 나승상의 노예가 된다.²⁸⁾ 최치원이 변장을 한 것은 자신의 천상적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치원이 스스로를 낮춘 것은 자신의 천상적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의 반응이었다.

최치원이 스스로를 낮추자 사람들은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최치원에게 접근한다.²⁹⁾ 그러나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과 최치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만들 뿐이어서 최치원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깊은 고독의 심연에 빠지게 된다. 화원에서 홀로 새소리를 들으며 비탄에 잠기기도 하는 것은³⁰⁾ 최치원이 사람들의 몰이해로 인해 파생된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슬퍼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몰이해에 맞서서 취한 최치원의 다음 행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천상적 능력을 지녔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

27) 최치원은 중국에서 온 학사들에게 자신을 나승상의 하인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兒曰 我新羅丞相羅業蒼頭也<崔孤雲傳>), 나승상에게는 고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對曰 年今十一 而早喪父 雖欲學書 孰從學文哉<崔孤雲傳>), 이것은 최치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28) 改着弊衣 詐稱繕鏡之賈乃入京師 以繕鏡之聲數呼於丞相門前 所操之鏡故墜破之 鏡已破 頓足何事 願以身作奴 以償此鏡矣<崔孤雲傳>.

29) 丞相戲之曰 欲爲學書乎 汝欲學之 吾當教之<崔孤雲傳>

30) 自是花叢滋盛 小無衰落 而鳳鳥亦飛巢於花枝矣 於是破鏡聞鳳鳥之聲 乃作悲歌<崔孤雲傳>.

다. 나승상의 말을 먹이면서 저녁이 되어 돌아올 때가 되면 말들이 최치원의 주위에 모여 일렬로 서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모습을 갖추게 하는가 하면,³¹⁾ 화원을 돌보면서 온갖 꽃들이 무성하게 하고 못 새들이 모여들게 하기도 하며,³²⁾ 나승상의 딸인 나소저에게 자신이 탁월한 시적 능력이 있음을 은밀하게 알려주기도 한다.³³⁾ 몇 가지의 신이한 행위로 나소저와 승상 부인의 이목을 끌며 최치원은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범상치 않음을 알리는 데 성공한다.

나소저와 승상 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데 성공한 뒤, 최치원은 나승상이 신라 임금으로부터 중국이 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에 빠져있을 때 나소저를 찾아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나소저가 나승상에게 최치원이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고 신이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최치원에게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게 한다.³⁴⁾ 이 대목에서 최치원은 나소저와의 결혼을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내걸어 마침내 나승상의 사위가 되고 중국이 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다.

최치원이 천상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정보는 나소저와 승상 부인을 거쳐서 나승상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나승상에 앞서 나소저와 승상 부인이 최치원의 능력을 먼저 인정하고 이들의 중재에 의하여 최치원이 나승상의 사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최고운전>이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가정이 지배되기 이전 시기의 사회의식을 반영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이 나승상의 사위가 된 것은 그가 천상적

31) 日暮山澗 群馬乃歸破鏡所臥之處 皆向俛首羅立 見者莫不異焉<崔孤雲傳>

32) 自是花叢滋盛 小無衰落 而鳳鳥亦飛巢於花枝矣<崔孤雲傳>

33) 於是 羅女聞破鏡受由歸鄉 乃入東山翫花 作詩曰 花笑檻前聲未聽 破鏡隱於花間 忽然答曰 鳥啼林下淚難看 於是羅女板面羞而還<崔孤雲傳>

34) 破鏡雖幼童子 才學絕人 且有神奇之氣 招命破鏡 究此函中之物而作詩 能作此詩矣<崔孤雲傳>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낸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것도 자신의 능력을 국왕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큰 단락 1은 최치원의 천상적 능력과 현실적 한계상황을 대립시킨 다음, 최치원이 천상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인정받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최치원은 큰 단락 2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는 것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최치원의 욕망은 현실세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다른 욕망과 상호 부정적인 관계 위에서 전개되어야 했다.

중국으로 가서 본격적인 활약을 펼치기 전에 최치원은 먼저 세 곳을 방문하는 과정을 거친다. 첨성도(瞻星島)라는 섬에서 용궁을 방문하고, 위이도(魏耳島)에서 백성을 구제하며, 절강(浙江)에서 세 명의 이인(異人)을 만난다. 그런데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처럼 보인다. 특히 용궁을 방문하고 위이도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부분의 사건은 중국에서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사건과 접맥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이 독립된 삽화처럼 존재하게 한다. 최치원의 천상적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강에서 세 명의 이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 장면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최치원이 중국에서 벌이는 본격적인 활약상을 살펴보기 전에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기능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찾은 곳이 첨성도(瞻星島)였다. 이곳에서 최치원은 용왕의 아들 이목(李牧)으로부터 공자(孔子)의 도(道)를 알도록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용왕의 아들

에게 공자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용궁의 질서를 공자의 가르침에 의해 개편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최치원은 천유(天儒)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고 유자(儒子)로 불려지고 있었다.³⁵⁾ 이목의 제안은 공자의 가르침에 의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나간다는 유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최치원은 중국으로 갈 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한다. 중국으로 가야한다는 자신의 현실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목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용궁은 통치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최치원이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용궁이 현실과 격리된 초현실의 세계라는 점에서³⁶⁾ 용궁을 이상실현의 장소로 선택하게 되면 최치원은 현실공간에서의 자기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성취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지금까지의 의지와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최치원이 이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자기가 서있는 삶의 현실공간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³⁷⁾

침성도를 떠나 최치원이 다음에 도착한 곳은 위이도(魏耳島)였다. 이곳에서 최치원은 한재(旱災)를 당해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용자(龍子)인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한다. 그러나 비를 내린 것 때문에 이목은 하늘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내려서는 안 되는 비를 내리게 한 것이

35) 問於致遠曰 儒子將安之<崔孤雲傳>

36) 용궁에서 나온 후, 다녀 온 곳을 묻는 질문에 최치원은 신선의 세계에서 왔다고 하며(從仙間而來), 용궁을 현실과 격리된 초현실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37) 최충이 동굴 속의 선계(仙界)를 부정하고 인간세계로 되돌아왔던 것도 부인과의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세계에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였다. 이런 점에서 최치원이 이목의 제안을 거절하고 현실공간으로 되돌아 온 것과 최충의 행위는 모두 현실공간을 활동 무대로 삼아야 한다는 동일한 가치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목이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으로서 정치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치원은 그 덕목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의 의무는 비를 내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조건지워져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처하자 최치원은 그 까닭을 물어본다. 죄악에 가득차 있는 위이도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일부러 한재를 내렸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비를 내려 구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하늘의 대답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려 할지라도 먼저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심각한 시행착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위이도에서는 이상의 실현과 하늘의 뜻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상의 실현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상식이 깨어지는 충격이 나타나며 반전을 통해서 사고의 깊이에 도달하게 하여, 하늘의 뜻에 입각하였을 때 이상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훨씬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위이도를 떠난 최치원이 중국의 절강(浙江)에 도착하여 세 명의 이인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은 이런 생각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세 명의 이인은 미래를 예측하고 닥쳐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는 등의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 선계(仙界)의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선계의 인물들이 최치원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최치원이 중국에 가서 마음껏 포부를 펼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전에 중간단계로 나타나는 부분은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일정한 의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현실과 격리된 초현실적

인 세계가 <최고운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지라도 최치원의 활약 무대는 현실공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최치원이 중국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천상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상 실현의 기반으로 삼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고가 작품전개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앞서서 보여주려는 것이다.

드디어 중국의 증원으로 들어간 최치원은 황제가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아홉 개의 문에 설치해 놓은 갖가지 장애물을 무사히 통과하여 황제 앞에 이르는 능력을 발휘하고, 밥 속에 몰래 숨겨둔 독약을 찾아내며, 천하의 유생(儒生)들이 모두 모여 재주를 겨루는 과거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천하제일의 문장력을 뽐내기도 하며, 황소가 난을 일으키자 문장으로 이를 제압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황제는 최치원의 초인적 능력에 감탄하여 음식이며 숙소를 천자와 같은 수준으로 마련해 주고 거만(鉅萬)의 상금을 하사하며 문신후(文信侯)에 봉하고 식읍을 하사하는 등 최고의 예우로 대접해 준다. 중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황제에게 지극한 대접을 받음으로써, 최치원은 하늘로부터 커다란 재주를 받고 태어나서 그 능력을 크게 떨치고 천하를 주유(周遊)하는³⁸⁾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최치원이 중국에 간 것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변방의 소국인 신라의 유생일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그 능력에 적합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대의(大義)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룸으로써 최치원은 마침내 신라에서부터 꿈꾸었던 이상, 즉 큰 사람이 큰 도(道)로써 작은 사람을 포용하는³⁹⁾ 이상적인 세상의 질서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38) 天生大才必有用 今入中原 則天子必用我 大則封侯 小則將相 丈夫周遊天下 自古有之<崔孤雲傳>

중국과 신라가 우열관계로 재단되지 않고 대등하게 관계를 맺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치원의 이상은 작은 나라는 오직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도로써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욕망에⁴⁰⁾ 의해 부정되고 만다. 이 때 작은 나라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응만이 강요될 뿐이다. 작은 나라의 입장이 수용될 때에도 큰 나라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질 경우에 국한되며 이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힘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입장에 설 경우, 최치원에게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도리만이 지켜야할 당연한 의무로 강요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조정에 팽배해 있는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였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도로써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욕망에 의해 최치원의 이상이 부정되면서 최치원은 중국 조정의 대신들에게 모함을 받아 섬으로 귀양을 가서 굶어 죽어야 하는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치원은 음식의 공급이 중단되는 극한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살아남아 황제를 놀라게 한다. 최치원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절강에서 만났던 세 명의 이인 중 한 사람인 노파에게 받았던 신물(神物)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천녀(天女) 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황제는 마침내 최치원이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고⁴¹⁾ 최치원을 다시 불러오게 한다. 그러나 황제는 돌아온 최치원에게 속국(屬國)인 신라의 백성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을 책망한다. 이에 대해 최치원은 허공에 한 일자(一字)를 긋고 거기에 걸터앉아 그곳도 황제의 땅인가 묻는다.⁴²⁾

39) 大凡 長者之於小者 長者以長者之道遇小者<崔孤雲傳>

40) 이것은 최치원이 한 말로서, 신라를 변방의 작은 나라라 하여 업신여기며 우열관계로 파악하는 중국의 황제와 신하들의 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드러낸 말이다.

41) 帝大驚曰 天之所恤之人也 <崔孤雲傳>

42) 致遠書一字於空中 而躍居其上 曰是亦陛下之地乎 <崔孤雲傳>

최치원이 허공에 그어놓은 글자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하늘과 함께 하는 사람이며,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이상적인 세상의 질서는 곧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치원의 물음에 황제는 용상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에 이르는데,⁴³⁾ 이것은 최치원의 승리이며, 그가 꿈꾸었던 사회적 대의(大義)가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황제에 대한 최치원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는 오직 큰 나라를 섬기는 의무를 다해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조정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최치원은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귀국하게 된다. 최치원의 귀국은 사회질서를 개조하려는 이상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 전체의 거대한 힘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⁴⁾ 최치원은 하늘의 뜻을 등에 업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에 부딪혀 자신과 가족을 모두 불행하게 함으로써 태생적으로 부과되었던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한 좌절과 더불어 사회질서를 개조하려는 노력마저 실패로 돌아가는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다.

IV. 아래자설화 전승의 소설사적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치원은 탁월한 능력을 앞세워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극복하려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큰 사람이 큰 도

43) 帝大驚下床 頓首謝之 <崔孤雲傳>

44) 최치원은 귀국하기 직전 황제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청사자(靑獅)를 타고 신라로 돌아오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작품 설정은 최치원의 좌절과 실패를 덮어버리기 위한 장치이다. 이 때문에 <최고운전>에는 최치원의 좌절보다 중국에서의 영웅적 활약이 부각되어져 있다.

(道)로써 작은 사람을 포용하는 이상적인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태로 태생적인 삶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어 고독한 예외자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고,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 전체의 거대한 힘에 부딪혀 좌절해야 했다. <최고운전>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던 비극적인 영웅의 삶을 다루고 있는 비극적 영웅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운전>의 작품적 성격을 비극적 영웅소설이라 한다면, 최치원의 삶이 작품화되는 과정은 서로 대립적인 두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증법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비극적인 요소와 영웅소설이라는 것 그리고 변증법적 질서가 <최고운전>을 특징지워주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고운전>의 소설사적 의미가 변증법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비극성과 영웅소설의 사적(史的) 좌표를 읽는 작업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최고운전>에는 대립적인 두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조건지워져 있었다. 대립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맞서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치의 등가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천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 이상세계의 실현과 현실적 의무의 이행 등의 대립쌍은 대립쌍 내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치의 우열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사람들에게 어느 한 쪽을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대립적인 두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조건지워져 있을 때, 사람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선택의 갈등에 빠지게 된다.

문창령을 제수받고 최충은 부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

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통곡한다. 개인의 영달과 가정의 행복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문제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은 최충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충은 실종된 아내의 자취를 따라 바위굴 앞에 이르러도 할 바를 몰라 통곡하다가 하리(下吏)인 이적(李績)의 가르침을 받아 행동하기도 하고, 자기의 아들을 버렸다가 되찾아오게 하기도 하며, 버렸던 아들을 되찾아 오는 대목에서도 아내의 지시대로 움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세 살 된 아들에게는 자신의 경박했음을 사죄하기도 한다. 최충이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신중하지 못함과 경박함, 절제하지 못함 등의 부정적 자질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사실들은 최충이 문창의 현령이라는 사회적 신분과는 관계없이 고귀함이나 비범함과는 거리가 먼 보잘 것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충이 문제 앞에서 왜소해지고 마는 일상적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최치원이 부친의 보잘 것 없는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최치원의 영웅적 능력은 부친으로부터 부여받은 무기력하고 보잘 것 없는 일상성을 극복한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금돼지에 의한 최치원 모(母) 납치 사건은 최치원이 부친의 혈통이 부과하는 일상성에서 벗어나 천상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 장치였다. 금돼지에 의한 납치 사건은 관부(官府)의 요괴설화, 지하국대적제치설화, 야래자설화 등이 융합된 것이다.⁴⁶⁾ 이 가운데 최치원의 혈통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야래자(夜來者)설화이다. 본래 백제의 건국신화에서 유래했다고 여겨지는 야래자설화는 서동

45) 실제로 최충은 아들인 최치원으로부터 부끄러움도 모르고 모질고 야박한 사람(豈不愧而今欲見我耶 …… 乃棄于此 其爲殘忍薄行之人也<崔孤雲傳>)이라고 매도되기도 한다.

46) 한석수, 최치원전승의 연구(계명문화사, 1989, 48쪽).

(薯童)이나 견훤(甄萱)설화에서 발견되며,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음에도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위대하게 된 인물을 드러내는 하층민의 민중영웅담에서 사용되고 있다.⁴⁷⁾ 아래자설화가 미천한 혈통을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인물의 영웅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하층 전승의 민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은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납치되어 금돼지의 혈통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최충이 최치원을 버린 것은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것이 최치원 자신을 통해 조목조목 허구임이 반박되는 등 최치원이 최충의 자식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최치원이 천유(天儒)들의 가르침을 받고 천상적 능력을 획득하도록 설정함으로써, 그의 천상적 능력도 금돼지의 혈통과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런데 최치원은 파경노로 나승상의 집에 들어가서 나승상에게 자신이 고아라고 하며 아버지 최충과의 혈연을 부정함으로써,⁴⁸⁾ 작품의 이면에는 최치원이 금돼지의 신이한 혈통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치원이 천유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금돼지의 자식이라 하여 버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돼지 사건은 어떻게 다루어지든 <최고운

4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215~219쪽)

48) 나승상의 집에 파경노로 들어간 최치원은 나승상과의 문답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대답한다(問於破鏡曰 汝之年歲幾何 而或有學書乎 對曰 年今十一 而早喪父 雖欲學書 孰從學問哉 <崔孤雲傳>). 그러나 최충은 월영대에서 최치원과 헤어지고 난 뒤 작품에서 종적을 감추어 버렸을 뿐이지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최고운전>에는 단 한 번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것은 최충과 그 아내에 의해 살해된 금돼지의 죽음이 다. 그러므로 최치원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대답한 것은 최충을 마음 속에서 제거시켜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와 살해된 금돼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려는 이중적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되든 이것은 모두 최치원이 최충과의 혈연관계를 부정하고 금돼지와의 혈연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에서 최치원이 혈통적 일상성에서 벗어나 천상적 능력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서 본다면, 최충이 보잘 것 없는 일상적 인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일상성이 금돼지에 의한 아내 납치사건을 통해 아들인 최치원에게 와서 극복되고 있는 것은 아래자설화의 전개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자설화의 전개방식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충은 하층의 미천한 인물이 아니라 문창현의 현령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령으로서의 최충에게는 다스리는 자의 엄격함과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고귀함이 속성으로 부여되게 된다. 이것은 보잘 것 없는 인물로서의 최충의 속성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최충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이중적 인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 최충의 이중성은 <최고운전>이 미천한 인물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아래자설화의 전개방식을 도입했음에도 실존인물 최치원이 6두품 계층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무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것이다.

<최고운전>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의 위대한 삶을 다루는 영웅소설이다. 영웅소설은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적 모형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모형은 건국신화에까지 소급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건국신화는 모두 천상이나 지상의 신(神)을 부모로 하는 아들이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신을 부모로 하는 혈통의 고귀함과 혈통의 고귀함에 근거하고 있는 영웅적 능력이 신화를 구성하는 두 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고운전>에는 최충이 보잘 것 없는 인물로 나타남으로써 최치원의 혈통이 고귀한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최고운전>이

49)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동아문화 10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쪽)
김열규, 민담과 이조소설의 전기적 유형(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84~99쪽)

건국신화의 서사적 모형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의 혈통과 관련하여 <최고운전>은 <홍길동전>과 대비된다. <홍길동전>은 연산조 때에 도둑의 무리를 이끌고 관장을 사칭하며 돌아다녔다고 하는 홍길동(洪吉同)에 관한 민중영웅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⁵⁰⁾ 두 작품은 하층의 민중영웅담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홍길동전>에는 주인공의 혈통이 고귀하게 설정되어 있다. 길동의 부친은 “딴딴 명문거족으로 소년등과하여 벼슬이 니조판서의 이르미 물망이 조야의 웃듬이요 충효겸비하기로 일홈이 일국의 진동허더라”⁵¹⁾고 묘사되어 있다. 인간됨의 품격에서 길동의 부친은 최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귀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고운전>과 달리 <홍길동전>은 건국신화의 서사적 모형을 충실하게 이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길동의 혈통이 고귀하게 설정됨으로써, <홍길동전>은 고귀한 혈통과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잘못된 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홍길동의 고귀한 혈통이 적서차별의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홍길동전>은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서사적 모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다. 영웅소설의 모형이 건국신화에까지 소급되어진다는 것은 영웅소설의 모형을 이루고 있는 서사문학의 전통이 건국신화에서 소설까지 이어져 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건국신화의 서사적 모형을 충실하게 재현해 냄으로써 건국신화와 영웅소설을 이어주는 서사문학의 전승과정에 대해 아무런

50) <홍길동전>과 민중영웅담과의 관계는 장효현, *홍길동전의 생성과 유전*(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158~171쪽)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음.

51) <홍길동전> 경판 29장 (김동욱 편, *고소설판각본전집* 5)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전승과정이 밝혀지지 않으면 영웅소설은 건국신화의 서사모형을 곧 바로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건국신화와 영웅소설이 바로 접맥되었다는 것이 되므로, 두 양식을 관류하여 흐르는 서사적 전승과정이 무시되어 버린다. 그러나 서사문학사에서 신화와 소설의 위치를 살펴볼 때 두 양식이 바로 접맥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두 양식을 이어주는 서사적 전승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고운전>의 성립시기를 16세기 중엽으로 볼 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고운전>이 성립되었던 시기에 영웅소설의 갈래 관습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최고운전>이 <홍길동전>보다 앞선 시대에 나타났으므로 <홍길동전> 이래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영웅소설의 갈래 관습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최고운전>은 건국신화의 서사모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최고운전>을 영웅소설로 분류하는 것은 <홍길동전> 이래의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영웅소설의 모형이 <최고운전>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고운전>에 나타나는 영웅소설의 모형은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일까?

<최고운전>은 아래자설화의 전개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래자설화는 본래 건국신화로 존재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아래자설화가 건국신화와 영웅소설을 이어주는 서사문학의 전승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국신화로 존재하고 있을 때, 아래자설화는 수신(水神)과 지신(地神)을 부모로 하는 건국시조의 탁월한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⁵²⁾ 그러나 역사 변화의 역학관계 속에서 건국신화로서의 기능이 중단되자, 야

52) 서대석, 아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189~216쪽).

래자설화는 신화의 신성성 대신 이물교구(異物交媾)의 기이성이 강화되며 출신 성분이 미천한 영웅의 탁월한 영웅성을 설명하는 민중영웅담 속으로 수용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야래자설화는 “밤중에 여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관계를 맺지만 마침내 야래자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여인은 탁월한 인물을 출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야래자설화가 탁월한 인물의 출생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래자설화의 본래 모습도 출생담에 국한된 것이었을까? 야래자설화가 출생담으로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물교구의 기이성이 강화되며 출생담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퇴화된 결과일 것이다. 야래자설화의 상당수에는 사람 대신 뱀과 같은 이물(異物)을 낳게 되거나, 이물교구만 나오고 출생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⁵³⁾

탁월한 인물 대신 이물을 낳는 것으로 변모된 것은 기이성이 강조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물교구만 나오고 출생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설화의 전승집단이 이물교구 그 자체에만 흥미를 갖고 다른 부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까닭이다. 출생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써 야래자설화는 출생담으로서의 본래적 기능마저 잃어버리고 기이한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다. 이것은 전승집단의 흥미가 이물교구의 기이성에 집중되며 야래자설화가 이물교구의 부분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래자설화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문제는 야래자설화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견훤(甄萱)과 서동(薯童)설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서동설화를 먼저 살펴보자.

53) 야래자설화의 분류는 다음이 글을 참고했음.

강재철, 한국 사서설화(蛇壻說話) 속의 비상인물화(한중일 설화의 비교연구, 아세아설화학회, 민속원, 1999, 155쪽)

이지영, 야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전승에 관한 연구(고전문학연구 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71~75쪽)

서동설화가 나오는 <삼국유사> 권이(卷二) 무왕조(武王條)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인물 소개
2. 탄생담
3. 왕이 되기까지의 활약상

단락 1과 2까지가 일반적으로 아래자설화로 지칭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서동설화는 단락 1~3까지의 내용을 모두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묶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자설화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지는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본래의 아래자설화가 출생한 인물의 활약상까지 드러내는 것으로 완결되어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견훤설화를 보면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역시 <삼국유사> 권이(卷二) 후백제 견훤조(甄萱條)에 나오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인물 소개
2. 탄생담
3. 태어난 견훤이 왕이 되었음
4. 견훤이 어려서 호랑이이 젓을 먹고 자람
5. 왕이 되기까지의 활약상

단락 1~3까지에는 견훤의 가계가 소개되고 출생담이 나타나며 태어난 견훤이 나중에 왕이 되었다고 하며 이야기의 한 단위가 마무리되어 진다. 단락 3에는 견훤이 나중에 왕이 되었다고 하며, 출생한 인물이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가 간단한 한 마디의 말로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요약은 탁월한 인물의 탄생을 드러내는 아래자

설화의 일반적 종결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락 1~3까지는 출생담으로만 되어 있는 아래자설화의 완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견훤조는 단락 1~3으로 완결된 이야기에 단락 4와 5의 내용이 덧붙여진 기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독립될 수 있는 삽화들을 나열하여 놓는 것이 전(傳)의 일반적 구성방식임을 감안하더라도, 단락 3에서 견훤이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일단 서사의 결말을 지어놓고 단락 4와 5에서 다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전체의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신이한 사실만으로 기술되어 있는 보양이목조(寶壤梨木條)를 참고해 보면, <삼국유사>에서 견훤의 전(傳)은 신이한 사실을 드러내는 단락 1~3까지의 내용만으로 완결되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견훤조(甄萱條)에는 단락 4와 5가 첨가되어 있다. 단락 4와 5의 내용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참고하여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견훤이 왕이 되기까지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연(一然)이 견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서사적 전개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단락 4, 5를 덧붙인 것은 아래자설화가 인물의 활약상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완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동과 견훤설화를 대상으로 본다면, 아래자설화는 인물의 출생담과 활약담(活躍談)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아래자설화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래자설화가 본래 건국신화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건국신화는 시조(始祖)의 출생담과 활약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명신화와 주몽신화에는 이런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여타의 신화에도 자세하고 소략한 정도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시조의 출생담과 왕이 되기까지 또는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⁵⁴⁾ 왕이

54) 신화에 따라서는 왕이 되고 난 이후의 행적과 건국하고 난 이후의 상황까지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도 모두 탄생담 이후에 나타나는 활약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혁거세신화처럼 앞에서 태어난 혁거세

되고 건국하는 과정이 곧 활약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건국신화의 일반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건국신화로 존재했던 아래자설화도 인물의 출생담에서 시작해서 활약담으로 끝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래자설화는 기이성이 강화되며 이물교구(異物交媾) 이외의 부분이 퇴화되고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아래자설화가 신화에서 전설이나 민담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이성이 강화되며 이물교구의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 축소되어지는 퇴화의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래자설화는 처음에 인물의 출생담과 활약담이 모두 나오는 건국신화로 존재했었고, 전설이나 민담으로 변모되어서도 처음에는 건국신화의 서사적 모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⁵⁵⁾ 기이성이 강화되면서 인물의 활약담이 거세되고 출생담으로만 존재하게 되고, 나중에는 출생 부분마저도 사라지고 이물교구의 부분만이 남는 변화의 과정을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최고운전>은 최치원이 기이하게 출생하여 버림을 받는 부분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버림받기까지의 부분은 최치원에게 부과되어진 다양한 삶의 조건을,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부분은 최치원의 사회적 활약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버림을 받는 부분까지는 출생담에 해당되며,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부분은 활약담에 해당된다. 이것은 <최고운전>의 구성이 최치원의 출생담

를 동천에 목욕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서 춤추고 천지가 진동하고 일월이 청명하여 왕이 되었다(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三國遺事>卷一, 新羅始祖 赫居世王條)고 하여, 혁거세의 활동상이 자연의 신이한 조화로 대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의 신이한 조화도 혁거세의 탁월한 활동상을 보여주는 우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5) 서동과 견훤설화는 아래자설화가 건국신화로 존재했을 때의 서사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과 활약담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고운전>은 보잘 것 없는 혈통을 물려받은 인물이 천상적 능력을 획득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아래자설화의 전개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었다. 아래자설화를 출생담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출생담으로만 받아들일 경우 아래자설화는 작품의 한 부분에 소재로 수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 아래자설화는 본래 출생담과 활약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최고운전> 또한 동일한 구성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최고운전>이 아래자설화의 본래 모습을 작품의 기본구조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고운전>이 아래자설화가 건국신화로부터 물려받았던 서사 모형을 작품 전개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고운전>은 <홍길동전>보다 앞서 나온 작품으로서 영웅소설의 갈래 관습과는 무관하게 쓰인 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고운전>은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음에도 탁월한 능력으로 위대하게 된 인물을 다루는 아래자설화의 서사 모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웅소설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영웅소설의 서사적 모형을 건국신화까지 소급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나타난 영웅소설의 양식이 건국신화로부터 시작되어 전설이나 민담으로 전승되어 오던 민중영웅담의 서사적 모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V. 비극성의 소설사적 의미

최치원은 바닷가에 버려진 뒤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고 월영대에 남는다. 일상적인 자아로의 복귀를 거부한 것이다. 이후 최치원은 금돼지에 게서 물려받은 능력과 천유(天儒)들의 가르침에 힘입어 탁월한 능

력을 갖춘 다음 자신에게 부과되어진 비정상적이며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승상의 사위가 되어 정상적인 가정의 질서를 이루고, 그 뒤에는 중국에 들어가서 대단한 활약으로 문신후(文信侯)에 봉해지고 엄청난 상급도 받아 부귀와 명예를 가족과 함께 하려 했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치원은 중국에서 귀국한 뒤 임금에게 배척되어 가야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최치원은 왕후장상이 되어 부귀와 명예를 가족과 함께 하려 했으므로 임금에게 배척되어 가야산에서 생을 마치는 것은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절망이요 좌절이었다. 최치원의 좌절은 그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음에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와 그의 삶을 파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최치원은 나승상의 사위가 되며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가정의 행복과 연결시키려 했다. 중국에 간 것도 더욱 큰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 가정의 행복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 가게 됨으로써 최치원은 신라의 사정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귀국하여 임금에게 배척되어 자신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었다. 처음의 의도와는 반대로 사회적 성취가 오히려 가정의 불행을 야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더욱 큰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최치원의 비극은 아이러니이다.

개인의 사회적 성취가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은 최치원이 아버지 최충에게서 물려받은 태생적인 삶의 조건이었다. 최치원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삶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 것은 태생적으로 부과되어진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이 운명적으로 최치원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치원의 비극은 깊은 허무주의와 연결된다. 가야산에 은둔하여 생을 마친 것은

운명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 영웅의 좌절과 허무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치원이 신라의 국위를 높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가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귀국하여 배척된 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치원은 개인적인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사람의 능력은 나이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이가 들어야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라왕의 사회적 통념을 깨뜨린다.⁵⁶⁾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최치원의 본격적인 노력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에 가서 최치원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작은 나라의 사람이 오히려 큰 나라의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국(小國)의 백성은 능력도 보잘 것 없으니 대국(大國)을 섬기는 일이나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최치원은 중국이 대국이지만 소국만 못하다는 말을 했다는 참소를 입어 귀양을 가서 굶어 죽기에 이르르게 되고, 살아 돌아와서는 황제의 사자를 꾸짖은 죄에 대해 문책을 받는다. 천하의 선비들과 겨루어 장원을 하고 황소(黃巢)의 난을 평정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최치원은 중국에서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치원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른 나라를 구별하여 우열관계로 파악하려는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최치원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거대한 힘에 절망하여 귀국하고 만다. 잘못된 사회질서를 바꾸려 했던 최치원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거대한 힘에

56) 上曰 汝之年少若是 雖入中原 將爲奈何 對曰 誠以年體爲之 則天下之儒 年長體壯者 何不爲究此函中之物而作詩也 王驚愕<崔孤雲傳>

부딪쳐 좌절하고 만 것은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치원이 중국에서 이루려 했던 사회질서의 개선은 그가 외국인, 특히 작은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치원이 중국에서 대단한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회질서를 개선시키려는 이상을 실현시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치원이 사회적인 성취를 거듭해 나갈수록 최치원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배척도 거세어져 갔다. 처음에는 최치원의 능력에 놀라다가 질시하기에 이르고 드디어는 무인도로 보내 굶겨 죽이려 하기에 이르렀다. 최치원의 사회적 성취가 오히려 그에 대한 반감을 더욱 증폭시켜 죽음에 이르게 까지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러므로 사회질서를 개선하려던 최치원의 좌절과 비극 또한 아이러니의 결과이다.

최치원은 천상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어려서는 천녀와 천유들에 의해 양육되고, 자라서는 선계(仙界)에 있는 이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최치원은 하늘과 함께 하는 인물로서 황제로서도 어찌할 수 없어 마침내 용상에서 내려와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할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를 개선하려던 최치원이 좌절한 것은 그가 변방의 소국인 신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치원의 좌절과 비극은 자국(自國)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중국에 대한 깊은 분노로 연결된다. 최치원이 황제의 사과를 받아낸 뒤 청사자(靑獅)를 만들어 타고는 홀연히 신라로 돌아오는 대목에서 독자들이 좌절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⁵⁷⁾

57) <최고운전>에는 중국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최치원은 究函中之物而作詩의 문제를 내어 위력으로 신라를 굴복시키려는 중국의 횡포를 강력하게 성토했고, 청사자를 타고 귀국하기 직전에는 중국

최치원의 비극이 아이러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최고운전>의 비극성을 특징짓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고운전>에서 아이러니는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대립적으로 맞서있는 상황에서 파생되고 있었다. 즉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 그리고 중국과 신라가 대등하게 관계 맺어야 한다는 것과 우열관계로 재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최치원의 좌절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아이러니가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파생되고 있고, 비극이 아이러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고운전>의 비극이 변증법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고운전>의 비극성은 <금오신화>의 비극성과 구분된다. <금오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와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에서 주인공인 양생과 이생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친다.⁵⁸⁾ 이것은 양생과 이생의 비극이 불가능한 꿈, 그래서 실패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를 향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침으로써 나타나고

황제의 횡포를 규탄한다. 이것은 <최고운전>이 창작되고 향유되던 당시 중국에 대한 작가와 독자들의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다.

- 58)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서 양생은 일찍부터 여인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定非人間滋味 生雖疑怪 見其談笑清婉 亦不之疑也) 마침내 여인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여인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이생도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生雖知已死 愛之甚篤 不復疑訝)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양생과 이생은 죽은 여인인 줄 알면서도 사랑을 성취하려 하고, 마침내 여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 세상을 등지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린다. 이것은 양생과 이생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면서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오신화>는 존재의 의미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주인공들의 진지하면서도 비장한 삶의 자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비극이 아이러니의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최고운전>에는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과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이러니가 소설에서 비극의 장치가 되는 것은 <최고운전>에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⁵⁹⁾ <최고운전>의 비극이 아이러니에 의해

59)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19~220 쪽)에서는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의 비극이 아이러니에 의해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작품의 공간을 환상과 현실의 세계로 나눈 다음,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환상에서의 만남과 고독의 해소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알고 고독과 우수의 깊이가 오히려 심화되는 구성법이 아이러니에 의한 것으로 보고, 환상체험의 결과 엄습해 오는 생애에 대한 절망감에서 비극과 고독의 정서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는 환상과 현실을 이원화시킨 뒤 현실세계에 대한 반성적 인식에서 환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고, 환상체험에 대한 반성이 다시 현실에서 이루어지면서 환상과 현실세계에서 인식의 격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극과 고독의 정서를 파생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의 구성을 이렇게 이해하면, 작품의 중심은 현실에서의 결핍을 환상의 세계에서 채우기 위한 충족의 행위와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는 반성적 인식행위에 두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에는 어디에도 환상과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격차를 통해 인간과 삶에 대해 반성적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두 작품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이생과 양생의 애절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비극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두 사람의 행위가 좌절로 돌아감으로써 파생되고 있다. 작품의 결말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세상을 등졌다든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하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환상체험의 허무를 자각하는 데에서 생긴 절망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인과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는 죽은 여인과의 사랑이라는 역설적 화합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사랑을 이루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사랑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금

서 나타나는 것은 실재했던 인물 최치원의 생애가 그랬던 탓이고, 중국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던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신라 사람이면서도 중국에서 출세하려 했고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용납되지 않자 귀국하여서는 신라에서도 용납되지 못했던 최치원의 생애가 이중성을 드러내며 아이러니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질서를 개선하려던 이상이 좌절하게 된 것은 중국과 우리를 우열관계에 입각하여 재단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대등한 관계로 개선시키려는 열망과 이것을 실현시킬 수 없었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운전>이 창작되었던 15, 6세기, 주체성을 내세워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대(事大)의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⁶⁰⁾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율배반적 사고가 작품에 반영되며 또 다른 아이러니의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는 대극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삶의 양면성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깊이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최고운전>은 최치원의 삶이 중국과 신라에 모두 걸쳐있게 됨으로써 비극적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간과해 내어 중간자적 존재로서 최치원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었고, 주체성(主體性)과 사대주의가 평행하게 맞서는 이율배반적 사고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밀고 나가고자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었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뇌를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최고운전>에 이어 아이러니가 비극의 장치로 사용된 것은 일사 소설(逸士小說)로 지칭되는 허균의 작품에서이다. 허균의 한문소설

오신화>의 비극을 아이러니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60) <최고운전>이 창작되었던 16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내세우려던 노력이 사대의 예를 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교체되던 시기로 보는 관점(조상우, 최고운전에 표출된 대중화(對中華) 의식의 형성배경과 의미(민족문학사연구 25집, 민족문학사학회, 2004, 112~133쪽)은 이런 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좋은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인 <엄처사전(嚴處士傳)>, <손곡산인전(孫谷山人傳)>, <장산인전(張山人傳)>,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장생전(蔣生傳)>은 모두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우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서도 비범한 내면을 감추고 평범하게 살아가야 하는 데에서 오는 이율배반적 모순이 불행의 원인이 되어 이들의 삶은 비극적으로 종결되고 있다. 비극이 아이러니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일사소설은 겉으로는 세상과 화합하여 지내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바꾸려는 양면적 속성을 지닌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다.⁶¹⁾

<최고운전>과 허균의 한문소설에서 아이러니가 비극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비극적 아이러니가 조선전기의 소설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사회적 모순이 분출되어 나오기 이전,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중세사회의 질서에 맞서기 위한 내적 에너지와 이를 억누르고 있는 사회적 압제 장치가 맞서 있던 조선전기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최고운전>의 창작시기가 밝혀짐으로써 조선전기의 소설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본고에서는 상호 부정적이고 대립적인 두 욕망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최고운전>의 특징을 찾아보고, 그 특징에 의거해서 <최고운전>의 소설사적 의미를 찾아보려 했다.

살펴본 결과 <최고운전>은 최치원에게 부과되어진 삶의 조건을

61) 일사소설에 대해서는 조동일, 소설의 성립과 초기소설의 유형적 특징(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3, 238~245쪽)을 참고했음.

보여주는 부분과 사회적 활약상을 드러내는 부분을 나누어져 있었다. 삶의 조건은 최치원이 태어나서 버림을 받는 부분까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활약상은 최치원이 버려졌던 월영대에서 나와 나승상의 집을 찾아가는 부분부터 작품의 종결부분까지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최치원은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납치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가정적으로는 개인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개인적으로는 천상적 능력을 지닌 인물과 현실적 한계를 지닌 인물이라는 양면적 속성을 태생적으로 물려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이상세계를 실현하려 하면서도 현실세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삶의 조건을 부여받고 있었다.

사회적 활약상은 최치원이 자신에게 부과되어진 삶의 조건을 바탕으로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활약상을 보여주는 부분은 단락 1.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부분, 단락 2. 중국에 들어가서 활약하는 부분, 단락 3. 귀국하여 은거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단락 1~3까지를 순차적 질서에 의해 살펴본 결과, <최고운전>의 전개 과정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었다. 그리하여 최치원은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바꾸어, 개인의 사회적 성취가 가정의 질서를 공고히 해주고 공고한 가정적 질서 위에서 더욱 커다란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놀라운 사회적 성취가 오히려 자신과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하여 자신에게 부과되었던 삶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볼 때, 단락 1은 최치원이 천상적 능력과 현실적 한

계상향을 대립시킨 다음 최치원이 천상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단락 2는 단락 1에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사회질서를 개조하기 위한 놀라운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치원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사회질서의 개조에 실패함으로써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고운전>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한계 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던 비극적인 영웅의 삶을 다루고 있는 비극적 영웅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작품은 대립적인 두 욕망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증법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최고운전>의 소설사적 의미는 변증법적 질서의 의해 지배되고 있는 비극성과 영웅소설의 사적(史的) 좌표를 찾는 데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의 결과 <최고운전>은 아래자설화의 전개 방식과 서사모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영웅소설이 될 수 있었고, 이것으로 해서 조선시대의 영웅소설이 건국신화로부터 전설, 민담으로 전승되어 오던 서사적 모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었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었다.

<최고운전>의 비극성은 아이러니의 결과였는데 아이러니가 소설에서 비극의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최고운전>에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아이러니를 사용함으로써 <최고운전>은 중국과 신라 양 쪽에 걸쳐 있던 중간자적 존재로서 최치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고, 주체성과 사대주의가 맞서는 이율배반적 사고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뇌를 작품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최고운전>에 이어 아이러니는 일사소설로 지칭되는 허균의 한문소설에서도 비극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비극적 아이러니가 조선전기의 소설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 욕망, 변증법적 전개양상, 삶의 조건, 사회적 활약상, 비극, 영웅
소설, 아이러니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금오신화
최고운전(영남대본)
최고운전(김기동본)
삼국유사
고소설판각본전집(김동욱 편)

2. 논문

강재철, 한국 사서설화(蛇窟說話) 속의 비상인물화(『한·중·일 설화의 비교연구』, 아세아설화학회, 민속원, 1999, 155쪽)
김열규, 민담과 이조소설의 전기적 유형(『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84~99쪽)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2, 1~28쪽)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고전문학연구 16집, 고전문학회, 1999.12, 145~176쪽)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19~220쪽)
서대석, 아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189~216쪽).
신태수, 최고운전의 구성과 이상주의적 성격(문학과 언어 15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4.5, 151~181쪽)
이지영, 아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전승에 관한 연구(고전문학연구

- 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71~75쪽)
- 장효현, *홍길동전의 생성과 유전*(『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158~171쪽)
- 정병욱, *최문헌전 소개*(『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5, 269~278쪽)
- 정출현,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전소설사의 한 국면*(고소설연구 1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31~64쪽)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동아문화 10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쪽)
- 조동일, *소설의 성립과 초기소설의 유형적 특질*(『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3, 238~245쪽)
- 조상우, *최고운전에 표출된 대중화(對中華) 의식의 형성배경과 의미*(민족문학사연구 25집, 민족문학사학회, 2004, 112~133쪽)
- 최기숙, *권력담론으로 본 최고운전*(연민학지 5집, 연민학회, 1997, 53~105쪽)

3. 단행본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일조각, 1975, 84~99쪽).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돌베개, 1997, 219~220쪽)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집문당, 2002, 189~216쪽).
- 아세아설화학회, 『한·중·일 설화의 비교연구』(민속원, 1999, 155쪽).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고려대출판부, 2002, 158~171쪽).
- 정병욱, 『한국고전의 재인식』(홍성사, 1979.5, 269~278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지식산업사, 2005, 215~219쪽).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3, 238~245쪽).
- 한석수, 『최치원전승의 연구』(계명문화사, 1989, 48쪽).

The characteristic to be exposed in <Choi, Go-un Cheon(崔孤雲傳)>
and Its meaning on the history of fiction

Ahn, Chang-Soo

<Choi, Go-un Cheon(崔孤雲傳)> shows the process to make meaning to be formed by the two desires to be opposed to each other. The literary work was divided into two parts to show the condition of life and the playing an active part in the community, and so was composed of the story that the hero plays an active part in the community according to his life condition.

As a result, <Choi, Go-un Cheon(崔孤雲傳)> shows a tragic affair that Choi, Chi Won(崔致遠) as a hero tried to break his negative life condition, and to rebuild the social order, but his efforts ended in failure. Such being the case, <Choi, Go-un Cheon(崔孤雲傳)> is to belong to the fiction for a heroic main character.

Searching for the meaning on the history of fiction, <Choi, Go-un Cheon(崔孤雲傳)> shows two facts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fiction for hero originated in accepting the narrative formality of the folktale for hero. The second, irony for tragedy was treated as important on the history of fiction in the former term of the Yi-Dynasty.

Key Words : desire, dialectical development aspects, the condition of life,
the playing an active part in the community, tragedy, fiction
for hero, irony

안창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전화번호: 051)510-2613

전자우편: csahn@pusan.ac.kr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